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세션 1a, “히브리서” 소개: 설교의 누구, 무엇, 왜 (1부)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신약성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레위인 숭배와 속죄일 의식에 대한 복잡한 조사와 이를 예수의 사역과 연결하려는 시도, 그리고 광범위한 구약성서 구절에 대한 광범위하고 현대인의 귀에는 종종 이상하게 들리는 해석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신비한 텍스트이며,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구약성서에 대해 다시 익숙해지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 정경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제자도에 대한 비전에 몇 가지 독특한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우리의 면밀한 연구에 보답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신약 성경 본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예수의 인격과 업적을 그의 지상 사역의 영역을 넘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의 아들의 활동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초기 교회에 아들이 예수라는 인격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스도론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죽음과 승천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초기 교회가 속죄 교리를 발전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여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새 언약의 시작을 위해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예수에 대한 증거로서 구약의 중요성을 더 많이 탐구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도 이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는 모든 독자도 이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격 안에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구약성경에서 어디까지 가는지에 있어서 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구약성경의 독특한 해석학을 제시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구약성경 본문을 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읽거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읽거나, 심지어 가장 특별하게는 아들의 입술에 담긴 것으로 읽음으로써 더 큰 의미, 더 완전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마도 믿음에 대한 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장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미덕을 보여준 영웅들의 퍼레이드입니다.

11장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 믿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독교 윤리와 신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또한 우주론, 궁극적 실체에 대한 질문, 우주가 구성된 방식,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 현재 보이는 실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회중이 직면한 도전의 본질 때문에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인 고통의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특히 고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일 때 고통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그는 그 이후 모든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위해 고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고통을 견뎌내고 심지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히브리서는 또한 모든 연령대의 그리스도인이 제자도가 충만해지려면 들어야 할 도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히브리서는 감사에 대한 호소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친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응답하라는 특정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호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사람들의 승인을 위해 사는 것에서 자유를 찾는 의미에서 수치심을 멸시하라는 호소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하늘의 박수를 위해 살며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산만해지거나 잠재적으로 탈선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또한 적절하게 지원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개별 제자들이 제자도에서 끈기 있게 버틸 수 있거나 점점 더 사적화되고 개인화된 세상에서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릴 수 있다면, 이것은 이 고대 설교자에게서 듣는 특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히브리서의 신비 중 하나는 저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 자체가 익명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편지에 주어진 제목, 즉 히브리인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의 저자로 추정됩니다.

이 가정은 오래된 것입니다. P46으로만 알려진 사본, 파피루스 번호 46, 바울의 서신을 모은 초기 파피루스 모음집에서, 서기관은 히브리서를 로마서 바로 뒤에 두어 바울 서신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이러한 경향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의 유명한 여행 및 선교 동반자였으며, 종종 알려진 바울 서신의 공동 발신자 또는 공동 저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첫째,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그는 2장 3절과 4절에서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믿는 사람이자 사도가 되었다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11-17과 고린도전서 15:3-10은 이 점을 강조하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효과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사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전파가 그를 개종시켰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자신의 다른 곳에서 단호하게 주장한 것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매우 불가능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저자가 수사적 예술성에 대한 분명한 헌신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설교 철학과 상치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설교했다고 썼습니다. 인용, 말의 고상함이나 지혜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인용, 고린도 사람들의 설득이 성령의 확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기술에 근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사적 장식의 예술을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이 매우 숙련된 연설가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믿고 느끼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충분히 명확히 밝히듯이 그의 기존 서신에서 결코 비난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정경성에 대한 논쟁은 또한 초기 교회가 이 서신의 저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확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이 바울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알았다면, 그것은 서방과 동방 교회 모두에서 사도적이고 따라서 정경적인 텍스트로 더 널리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세기 말까지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또한 이 서신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울의 저작이라고 주장하는 동기를 보여줍니다. 이 주장은 교회 전체가 이 서신을 인정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작자에 관해서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계에 속한 누군가가 썼습니다.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다른 초기 교부들은 바울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13장 23절에 나오는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제때에 온다면, 제가 당신을 볼 때 그는 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료 중 한 명은 여전히 바울의 다른 동료인 디모데와 자신의 움직임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세기 후반과 3세기 초반의 라틴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바나바가 레위인으로 알려졌고, 물론 레위인 제사장직은 히브리서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저자 후보로 선호했습니다.

아폴로는 또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명예로운 로기오스(logios), 즉 뛰어난 연설가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아폴로의 수사학적 능력은 고린도 교회, 특히 바울이 말하는 데 약하다고 비판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인기를 얻은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아폴로에게 믿음에 대해 직접 가르친 사람이며 바울계에서 저명한 선교사 부부의 절반인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를 저자로 지명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쓴 신약성경 본문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분사입니다. 그리스어에서 분사와 형용사는 성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남성형, 여성형 또는 중성형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을 지칭할 때 남성 분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그리스어에 능숙한 저자가 단순히 그런 실수를 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1세기의 여교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 설교자로 투사하여 자신의 성별을 위장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초기 교회는 여성 교사들에게 개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청중이 이 설교자를 이전의 만남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너희에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구절은 저자와 청중이 함께 있었던 더 이른 시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녀가 프리스카나 프리스킬라였다면, 그녀는 어떻게든 그녀의 정체성을 위장하기 위해 남성 분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해답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서신을 썼을까요? 신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꽤 큰 사역 팀 중 누가 이 설교를 썼을지 알 수 없으며, 결국 우리는 추측을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 중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어의 거장으로 두드러진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분사의 자유로운 사용에서 발견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소유격 절대 구문과 신약 전체에서 극히 소수의 미래 분사 중 하나가 포함된다. 그는 또한 문법가들이 하이포텍틱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

이는 종속절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에 대한 그의 능숙함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병렬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절을 종속시키는 대신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즉, 마가의 그리스어 사용은 그리스어를 제2 언어로 배우고 그 언어로 작문하는 데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어를 모국어 화자처럼

사용합니다. 그는 또한 적어도 체육관 이전 수준에서 수사학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즉,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교 수준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그리스-로마 교육 시스템에서 훈련받은 수준에서 말입니다. 이제 신약 연구에서 저자가 어떤 수준에서든 수사학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와 관련하여 마가나 요한과 같은 저자보다 논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전 체육 수준 교육의 교과서에서 프로- 짐나스마타 라고 불리는 교과서는 일련의 논증적 단계를 거치는 주제나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습은 프로- 짐나스미적 훈련의 기초입니다. 수사학 학교에서의 전형적인 연습은 유명인의 말이나 속담의 지혜를 취하거나 명제를 제안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주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패턴은 이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먼저 주제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장할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진술은 근거로 뒷받침됩니다.

그 진술은 그 반대의 주장에 의해 더욱 뒷받침됩니다. 즉,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므로, 그 진술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교나 유추의 주장이 뒤따르며, 진술의 기본 논리가 일종의 확인 증거로 입증되는 인간 경험의 다른 영역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진술이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나 사건의 경우에 사실임이 증명된 역사적 사례나 선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는 권위자, 즉 문화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인용문이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런 다음 그 진술에 대한 주장을 재진술하거나 그 진술에 따라 행동하라는 권고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패턴은 pro- gymn

asmata 의 살아남은 교과서 중 여러 권 과 rhetorica와 같은 수사학 핸드북 에 나타납니다. 광고 키케로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헤레니움 .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에서 아주 사소한 수정을 가해 사용된 이 학교 교과서 패턴을 정확히 발견합니다. 이 구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논제에 대한 서론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아들로써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고를 잊었습니다.

이 논제 자체는 잠언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아, 주님의 형성 훈련인 파이데이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시는 동안 용기를 잃지 말라. 이 논제는 또한 잠언에서 인용한 내용의 일부인 근거로 뒷받침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는 모든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저자는 이 연습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 주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형성적 훈련을 위해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근거를 확증해 주십니다. 즉,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를 덧붙이시는데, 여기서는 청중이 양육되고 스스로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경험에 호소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 후에 우리는 반대의 주장을 발견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아이들이 참여자가 된 형성적 훈련이 없다면, 당신은 사생아이며 진정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비교나 유추의 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그것은 매우 가까운 유추이며, 신성한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자연적인 생물학적 부모의 영역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교육자로 삼고 경의를 표했으니,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적 논증은 다시 또 다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며칠 동안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징계했지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여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이 모든 것을 표준 격언을 인용하여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형성적 훈련은 존재하는 동안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격언은 실제로 고대 교육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때로는 이소크라테스,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기인합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저자는 이 격언을 수정하고 확장했는데, 이 격언은 이 교과서의 작문 예비 연습 중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심지어 훈련 또는 교육, 파이데이아(*payeia*) 와 열매, 카르포스(*karpos*) 라는 두 가지 핵심어를 보존했습니다 .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사적 논증의 예비적 패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숙달을 보여주며, 그것을 적당한 변형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에서 나온 주장에 근거를 더하고, 고대 교육의 핵심이었던 잘 알려진 격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면에서 저자는 자신의 설교적 우수성의 기초로서 강력한 교육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의 수사적 기술을 고려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실제로 무엇이고 이 의사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히브리서 또는 히브리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자신과 수신자를 밝히고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편지처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전형적인 편지 서두 대신,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세련된 서두를 발견합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도록 말입니다.

하느님은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다양하고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장 최근의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도록 정해 놓으셨고, 또한 그를 통해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의 본질의 형상이시며, 모든 것을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위해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서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서두에서 저자는 고대 수사학 핸드북에서 알려진 여러 가지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순전히 장식적입니다. 첫째, 그리스어로 된 설교의 서두 12개 단어는 청중을 두음 반복의 놀라운 사용으로 맞이합니다.

두음 반복은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사용하고 사랑하는 매우 일반적인 기법입니다. 첫 자음은 여러 번 사용되며, 아마도 설교의 주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저자는 12단어 내에서 다섯 번 두음 반복을 사용하여 서두 구절을 장식하고 이 P 소리를 반복합니다. 1장 3절에서 두 구절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병행 절은 다른 알아볼 수 있는 고대 문체 기법을 사용합니다.

arcton 과 homo- taluton 이라고 불리며 , 실제로 내부 운율을 만들기 위해 같은 일련의 소리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나 구절입니다. 따라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운율을 봅니다. 이것들은 수사적 예술성에 대한 두 번째 층의 관심을 암시하는 장식이지만 저자가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 텍스트가 아니라 발언, 즉 귀로 듣고 감상하기 위한 구두 전달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서두는 또한 대조의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요소가 있는 절을 구성하는데, 각 요소는 다른 절의 상관 관계 요소와 대조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뒤따르는 대조 절에서, 그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방식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 사이에 즐겁고 예술적인 균형을 만들어내어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자는 pro- gymasmata 의 기본 수준을 넘어서는 수사학적 훈련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또한 설교 전반에 걸쳐 눈으로 읽는 것보다 말하고 듣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읽힐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라 들릴 말로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대해 읽고, 여러분이 듣는 데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더라도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조금 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설교를 쓰고 있으며, 메시지의 구두 전달과 그 구성의 웅변적 성격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또 다른 점은 그의 설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의 문화적 위치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공식적인 수사학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교육이 그리스-로마나 이방인 기반 학교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주로 유대인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성서는 저자의 주요 문화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주로 구약성서를 그리스어 번역본, 흔히 칠십인역이라고 불리는 번역본으로 다룬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칠십인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 시작한 매우 초기의 번역 프로젝트였으며, 유대인들은 그리스어가 주요 언어가 되었고 조상의 언어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처음 다섯 권의 책인 율법의 책은 아마도 기원전 250년경에 그리스어로 출판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번역 행위가 원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외경인 벤 시라의 지혜를 번역한 고대 작가들조차도 이 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번역가인 벤 시라의 손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후, 그는 할아버지가 전달하고자 했던 뉘앙스를 잘못 전달하거나 놓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사과합니다. 번역의 서론에서 그는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다른 책들조차도 번역에서 원본과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사이에 생긴 간격은 히브리서 저자가 논증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당신은 그를,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작은'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창조의 사다리에서 더 낮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어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더 낮은 공간적 거리나 약간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모호함을 이용하여 시편 8편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간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지상 생활의 짧은 시간 동안, 태양은 천사보다 낮아졌습니다.

더욱 두드러지게, 저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시편 40편을 인용하여, 레위기에 규정된 동물 희생이 결코 이를 수 없는 수준과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셨다는 주장의 정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당신은 희생과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으나, 나를 위해 귀를 파내셨습니다. 이제, 귀를 파내는 그 이미지는 물론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 말하자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글의 의미는 귀를 창조하셨으니, 제가 당신의 법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그리스어 버전은 완전히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파낸 귀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위해 준비한 몸입니다. 아마도 그 시편을 번역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귀를 파내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서, 당신이 저를 위해 준비한 몸이라는 문구로 일반화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언급하고, 여전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할 몸을 의미합니다, 오 하나님.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번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가지 특별한 몸, 즉 아들이 예수로서 취한 몸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저자에게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하지 못했을 해석적, 신학적 열매를 맺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자는 청중이 칠십인역 본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신탁으로서 이러한 본문의 권위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자가 설교할 때 권위의 원천입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와 권고를 공유된 신성한 텍스트에 대한 설명에 근거하는 한, 들려지고 설득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이러한 텍스트 중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선지자와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증거가 아들 안에서, 예수의 인격과 경력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통합된 증거가 되는 방식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3절까지 이미 저자가 예수와 관련하여 의미를 찾는다고 믿는 구약의 구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는 그의 설교 전반에 걸쳐 그의 해석 전략과 해석적 전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본문은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읽힐 때,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읽힐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말씀할 때조차도 예수 자신의 입술에 놓일 때 그에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저자는 또한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유형적 해석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즉, 그는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아들과 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믿는 인물이나 활동을 발견합니다. 이는 아들과 그의 업적에 대한 그림자와 힌트이며, 그가 지상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모세를 예수, 곧 오실 중보자의 유형이나 모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레위 제사장직, 그 인원, 의식, 그리고 신성한 공간을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유형이나 모델로 여깁니다. 이것은 또한 저자가 유형을 기반으로 청중에게 권고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와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나쁜 반응을 바탕으로 자신의 청중이 예수님의 궁극적 중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또한 구약성경의 도덕적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구하는데, 그는 구약성경의 예를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모델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자의 주요 문화적 위치는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이 인용하는 유대교 경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저자는 또한 자신이 그리스-로마 세계의 시민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대교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위치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유대교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그는 서기 1세기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유대교가 발견되는 곳마다 유대교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미친 더 큰 그리스-로마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 가지 예는 저자가 그리스-로마 교육적 지혜를 사용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5장 8절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자신이 겪은 일이나 경험한 일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공통적인 격언을 구성했던 그리스어 단어 *emaphen* 과 *epaphen*을 발견하는데, 지혜는 고통에서 오고 학습은 경험을 통해 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에파펜 , 에마펜 , 그는 고생했다, 그는 배웠다. 이 격언은 아이스킬로스, 헤로도투스, 그리고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많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가는 또한 학습의 단계와 진행, 교육의 초보 단계와 더 진보된 단계가 있다는 생각, 우유를 마시는 것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의 비유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수준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교육학적 수준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것 사이에 유추를 만들어내면서 그리스-로마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5장 11절에서 14절에서, 너희가 듣는 데 게으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너희가 세월이 흘러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단단한 음식보다 젖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미숙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은 고상한 자와 천한 자를 분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단련받았느니라.

그리스-로마 작가들은 비슷하게 우유 대 고기 또는 우유 대 단단한 음식의 비유를 교육 수준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젖을 떼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할 철학적 원리를 받았고,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미루고, 그가 올 때까지 자신을 개혁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성장한 어른입니다.

게다가 에픽테토스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두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여 청중이 있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저자가 성숙한 사람에 대해 표현한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성숙함을 증명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같은 구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숙한 신자를 고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플라톤주의자와 스토아주의자가 장려하는 네 가지 주요 미덕 중 하나인 지혜의 미덕에 대한 표준 정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철학 학교가 제공하는 형성적 학문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룬 성숙한 사람, 즉 그가 가입한 그룹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Rhetorica ad helenium*의 저자가 말했듯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특정한 현명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더 큰 헬레니즘 환경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자신의 사고와 설교에 통합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저자는 예수를 그의 유대인적 유산이 아닌 거의 모든 그리스와 로마 철학 학파의 위대한 영웅, 즉 소크라테스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2장 14절과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부터 자녀들은 살과 피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자신도 같은 것을 온전히 공유하였으니,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모함하는 자를 멸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가 될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니라.

약간의 각색을 통해, 1세기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한 모습을 묘사한 방식과 유사한 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인류를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즉 죽음과 투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기회를 주었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2세기에 풍자 작가 루키아노스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려는 어떤 철학자에 대해 썼습니다.

*Peregrinus*는 이 특정한 쓸모없는 철학자의 이름이고, 루시안은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저자는 예수를 죽음 자체의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들여 추종자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자의 세계관에 맞게 예수가 사탄, 즉 중상모략자와 싸우는 모습을 포함하도록 적절히 각색한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쥐고 그것을 사용하여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박하는 데 사용했다고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운동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찬사의 결론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름다운 운동 비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이 큰 구름 같은 관중이 있으니, 우리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얹매이는 죄를 벗어나 버리고,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아직 죄와 맞서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개의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경주, 관중으로 가득 찬 관중석,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죄에 맞선 레슬링 경기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그리스 도시에서 익숙한 이미지를 설교에 가져옵니다. 육상은 현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 도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이 측면을 활용하여 영웅들이 기독교 문화와 그 문화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헌신하도록 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자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 복음주의 팀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팀의 멤버들 중에서 특히 수사학, 설득력을 갖기 위한 사고의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었는데, 특히 이 성경들이 고대 세계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의 중요성과 예수가 듣는 사람의 삶에 미치는 주장에 대한 독특한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적, 철학적, 운동적 삶을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리스-로마 세계의 시민입니다.